

경제포커스

서울시 산학연 협력의 실태와 시사점

신 창 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장)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재도약 및 향후 발전방안

김 선 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 경 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 형 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조 지 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재도약 및 향후 발전방안

김선웅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swkim@sdi.re.kr

김경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kimkb@sdi.re.kr

윤형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younh@sdi.re.kr

조지선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kaisen@sdi.re.kr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개요

- 서울디지털산업단지¹⁾는 1960년대 수출 진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였던 한국수출산업단지의 새로운 명칭임
- 구로구 구로3동과 금천구 가산동 일대에 약 60만평(약 198만㎡) 규모로 건설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960년 이래 지속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21세기 주력산업인 첨단 지식 산업구조로 개편할 목적으로 첨단정보, 지식산업 블록으로 산업단지를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1997~2006년)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1단지 내 키콕스 벤처센터를 건립하여 벤처산업의 지원 및 선도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등 첨단산업단지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표 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단지별 개요

구 분	계	1단지	2단지	3단지
준공년도	-	1967. 4. 1	1968. 6. 30	1973. 11. 24
면적 (㎡)	1,981,552㎡	452,647㎡	395,777㎡	1,133,128㎡
면적 (평)	약 60만평	약13만 7천평	약 11만 9천평	약 34만 3천평
비율 (%)	100%	22.8%	20.0%	57.2%
산업시설 용지 (76.0%)	1,506,724㎡	349,923㎡	289,431㎡	867,370㎡
지원시설 용지 (6.6%)	131,258㎡	67,099㎡	1,657㎡	62,502㎡
공공시설 용지 (17.3%)	343,570㎡	35,625㎡	104,689㎡	203,256㎡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현재와 미래」, 2005.2

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 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정, 공포에 따라 「한국수출산업단지」로 시작
- 2000년 국가산업단지의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를 목적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 개정



〈그림 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전경 (1단지 일대)

○ 설립배경 및 목적

-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964년 「수출산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총 면적의 90%가 국유지였던 구로지역 일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한국수출산업공단」이 관리하였음
- 1965년 3월 12일 1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1973년 총 3개단지 60만평의 산업단지가 준공되었으며, 입주초기에는 노동집약적인 섬유, 봉제 및 전자업종 등 수출기업들이 입주되었고, 1980년대 중반까지 국가 수출 10%이상을 차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음
- 그러나, 단지조성 이후 3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는 노후화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들어 노동집약업종들이 해외(동남아, 중국) 및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급속하게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해 졌음
- 이에 수도권 지역 내 산업 입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춘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벤처, R&D, 첨단정보지식산업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국가산업에 이바지하고 구로동 일대의 지역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변화하게 되었음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화계획은 섬유, 철강, 전자 등 재래산업의 쇠퇴에 따라 공동화현상을 보인 산업단지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킴으로 도심공업지역의 재생을 시도한 중요한 사례이며, 1984년 도쿄 인근의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철강 및 중공업의 쇠퇴에 대응하여 공동화된 도심의 공업지역을 첨단산업으로 재생시킨 사례(가나가와 사인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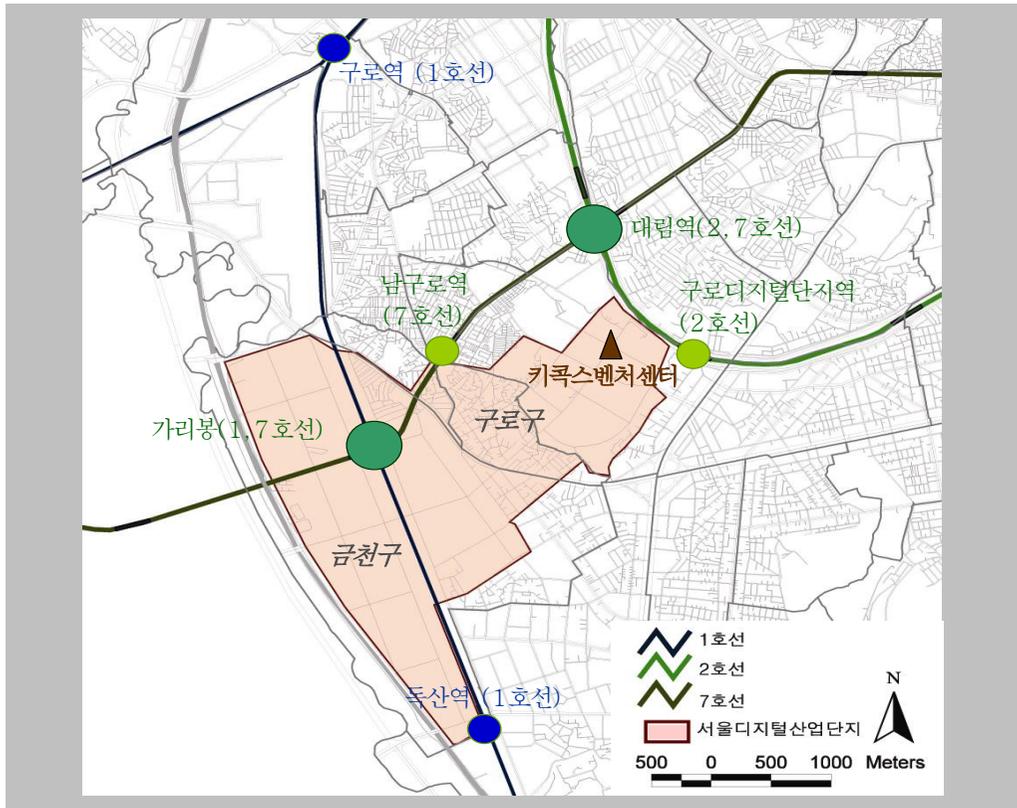
스파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재도약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음

- 최근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이 주력을 이루는 도심공업지역의 재생을 통해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고용을 증진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재황은 도심공업지역 재생과정을 이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도시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입지

○ 입지특성

- 서울 서남부의 부심지에 입지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준공업지역이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지가가 저렴하고, 시흥대로, 서부간선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접근이 용이함
- 공항과의 거리가 짧고,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대림역(7호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30분 거리에 강남, 여의도 및 도심에 접근할 수 있어 편리함
- 주변에 시흥유통상가와 구로공구상가에서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시험생산이 필요한 연구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



〈그림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위치도

○ 입지분석

-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층건물 형태의 아파트형공장이 발달하였고 이러한 공간적 제약에 적합한 첨단 연구개발형 기업들이 주로 입주함
- LG의 휴대폰 제조사업장이 위치하여 수많은 협력업체를 유인하는 앵커역할을 하였음. 향후 LG는 정보통신연구소를 확대하고 단지 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므로 지속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연계 및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한국산업단지공단²⁾ 본부가 위치해 있으며 산단공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변신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산단공은 2001년 고층 오피스건물 형태의 키콕스 벤처타워를 완공하여 처음으로 연구개발형 벤처업체가 입주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2) 1996년 정부방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던 수출산업관리공단의 명칭이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이하 산단공)으로 통합변경되었고, 현재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외 전국 30여개의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음

단지내 고층 오피스건물 형태의 아파트형 공장 群으로 발전을 거듭하였음. 이처럼 산단공은 향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관리계획 (1997~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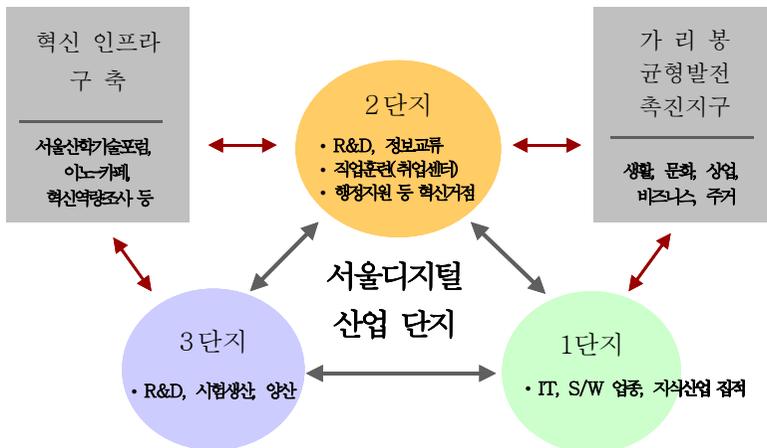
- 산단공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21세기의 주력산업인 첨단지식 산업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1997년~2006년까지 10년 계획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음
- 산단공은 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입주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 수요자들의 당면한 문제를 반영하려는 세부적인 접근을 시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7년 4월 첨단화 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7월 첨단화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단행하였음
- 업종관리: 업종 재배치 및 허용업종 완화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입주대상을 대폭 조정하여,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기술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였음
 -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업종은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제품 생산시설, 지식산업 시설, 정보통신산업 시설, 물류시설, 첨단기술산업(공업발전법 제3조2 제4항),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패션디자인업의 지식산업, 정보통신관련 산업(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이며, 시행령이 개정된 1997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음
 - 또한 기존공장 양수자는 첨단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산업재배치 계획에 적합한 업종에 한하여 입주허용토록 하고, 기존 산업에 연구시설 기능을 추가하여 보완하도록 관리함
- 업종배치계획
 - 관리계획에서는 각 단지별로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2006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업종 재배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단지별로 집적될 주력산업은 다음과 같음

<표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단지별 주력산업

구 분	1단지	2단지	3단지
면 적 (평)	약13만 7천평	약 11만 9천평	약 34만 3천평
업종배치계획	- 벤처기업 - 고도기술산업	- 패션디자인 - 고도기술 - 기타지식산업	- 고도기술 - 패션디자인 - 기타지식산업
주 력 산 업	- 1단지 중 약8만평 벤처산업 위주로 조성 - 키콕스 벤처센터 입지 - IT, S/W개발 등 지식산업중심	- R&D 및 창업 -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복합인프라 조성	- 고부가 가치 제품생산 및 물류기능중심

○ 향후 계획 방향

- 현재 산단공은 서울의 도심확장으로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전국 최대의 신 IT 집적지로 발전하기 위해 기 수립된 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의 변화상황과 필요에 맞게 융통성있는 관리지침을 수립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음
- 향후 생활, 문화, 상업, 비즈니스 및 주거가 결합한 형태로 발전할 가리봉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개발과 함께 서울산학기술포럼 등 혁신 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그림 3> 21세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관리방향



〈그림 4〉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도 (1,2,3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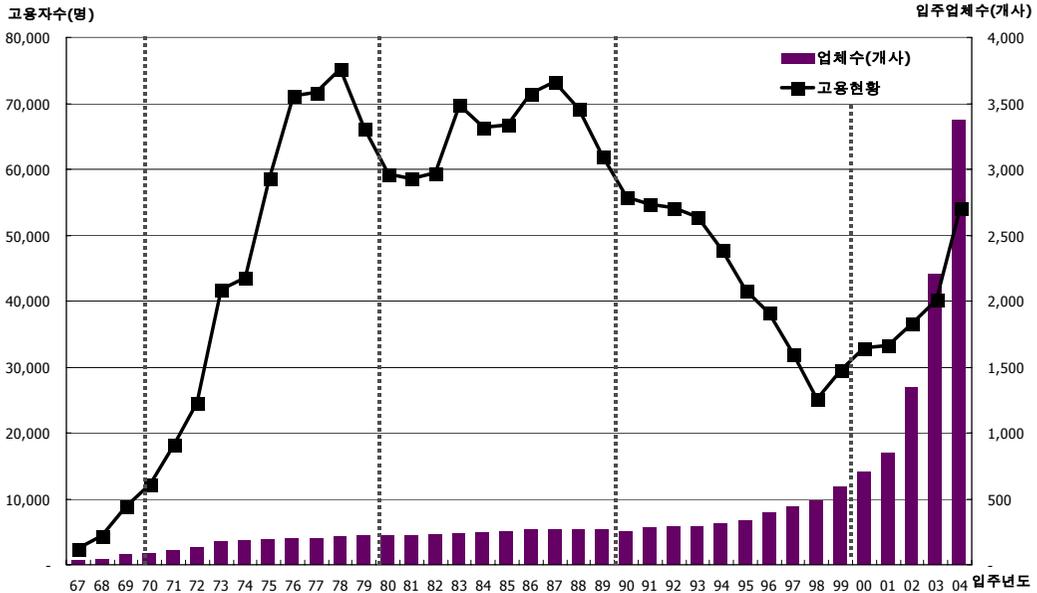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현황 및 실태분석

○ 입주업체 수

- 2004년 12월 현재 입주업체 수 분포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67년 초창기에 30여개 업체로 시작하여 1979년에 7배인 219개, 1989년에 1.2배인 262개, 1999년에 2.2배인 597개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2004년 12월 말 기준 입주업체 수는 3,375개임
- 구조 고도화계획이 수립된 1997년 이후로 현재까지 입주업체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표 3>에서 보면 2001년 이후 비제조업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비제조 업종이란,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제품 생산시설, 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시설, 첨단기술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패션디자인업의 지식산업 등이 포함되는 지식기반업종을 말하며,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2000년 이후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형공장 설립 붐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

- 사업체당 종사자는 1987년 279명에서 2004년 16명으로 변화함. 이는 과거 대기업 노동 집약적 생산형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형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함



〈그림 5〉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연도별 입주 업체수 및 고용현황

○ 고용규모 분포

- 산단공 서울지사가 관리하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4년 12월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총 3,375개사 (가동업체는 2,563개사, 벤처기업은 329개사)이며, 현재 고용인구는 54,180명임
- 단지설립 초창기인 1960년대에는 섬유·의복 등의 노동집약형 경공업이 주류를 이루었고 약 8,700명 (80여개 업체)이 고용되었고, 섬유·화학, 기계, 전자 등 중화학공업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된 1970~1980년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1987년에 이르러 최고 75,134명까지 증가함
- 그 이후 고용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8년에는 2만명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1997년 반도체, 정보·통신 등의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회복세를 보여 현재는 54,000명 수준임

〈표 3〉 서울디지털단지 입주 업종별 업체수 및 고용현황

입주 년도	구 분 고용현황 (명)	업종구분 : 업체수 (개사)									
		총계	음식	섬유 의복	종이 인쇄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비제조
1967	2,460	32	-	7	1	4	-	-	13	7	-
1968	4,487	46	-	12	1	5	-	-	18	10	-
1969	8,775	78	-	20	4	8	-	-	34	12	-
1970	12,283	91	-	25	6	9	-	-	37	14	-
1971	18,255	106	-	29	9	11	-	1	40	16	-
1972	24,531	137	-	38	12	13	-	1	55	18	-
1973	41,791	175	-	48	15	15	1	1	75	20	-
1974	43,551	184	1	52	15	15	1	1	79	20	-
1975	58,602	193	1	56	15	15	1	1	83	21	-
1976	71,071	201	1	60	16	15	1	2	84	22	-
1977	71,605	207	2	61	17	16	1	2	86	22	-
1978	75,134	210	2	61	17	18	1	2	87	22	-
1979	66,152	219	2	64	21	19	1	2	88	22	-
1980	59,371	222	2	65	22	20	1	2	88	22	-
1981	58,555	224	2	66	22	20	1	3	88	22	-
1982	59,446	234	2	73	22	20	1	3	91	22	-
1983	69,807	242	2	77	23	20	1	3	94	22	-
1984	66,357	250	2	81	24	20	1	3	97	22	-
1985	66,685	259	2	83	27	21	1	4	98	23	-
1986	71,440	269	2	87	28	23	1	4	102	22	-
1987	73,195	262	2	85	25	23	1	3	102	21	-
1988	69,196	262	2	84	26	23	1	3	104	19	-
1989	61,872	262	2	82	24	22	1	4	109	18	-
1990	55,694	261	2	80	26	22	1	4	110	16	-
1991	54,727	283	2	78	44	23	1	4	115	16	-
1992	54,096	288	3	79	45	23	1	4	117	16	-
1993	52,707	292	3	80	46	23	1	4	119	16	-
1994	47,872	310	2	81	63	22	1	3	122	16	-
1995	41,645	335	3	82	71	22	1	7	134	15	-
1996	38,171	397	6	82	88	19	-	3	183	16	-
1997	31,987	442	6	79	95	20	-	3	219	20	-
1998	25,126	483	5	80	95	21	-	3	245	34	-
1999	29,639	597	6	81	99	7	19	2	318	65	-
2000	32,958	712	4	94	100	9	17	2	405	81	-
2001	33,191	849	4	104	114	24	1	2	492	23	85
2002	36,564	1,343	6	107	125	39	3	5	764	26	268
2003	40,185	2,206	7	109	127	63	4	7	1,086	50	753
2004	54,180	3,375	14	238	157	93	9	12	1,505	71	1,276

주 : 비제조업종은 대기업의 연구 개발(R&D) 및 시제품 생산시설, 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시설, 첨단기술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패션디자인업의 지식산업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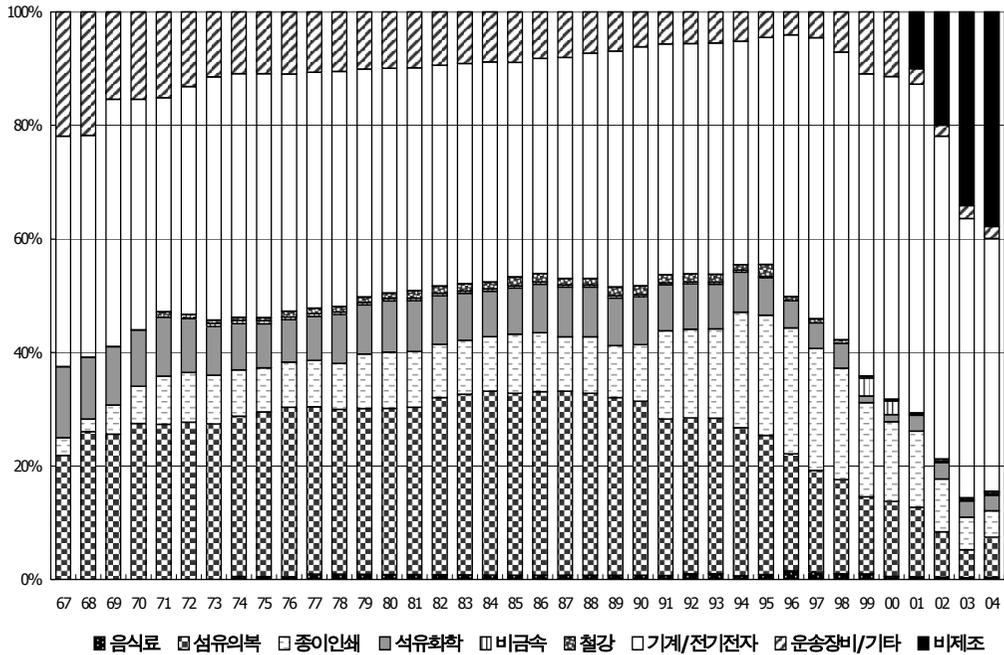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 내부자료 (2004.12 작성)

○ 업종별 사업체수 비율

- 2004년 업종별 사업체수 비율을 보면, 기계 및 전기전자업종(44.6%)이 여전히 강세이고, 섬유 의복(7.1%), 종이인쇄업(4.7%), 섬유화학(2.8%) 분야의 업체 수는 다소 감소하였고, 비금속 부분(0.3%)과 철강업(0.4%)은 현저히 감소함
- 비제조업종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제품 생산시설, 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 시설, 첨단기술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패션디자인업의 지식산업 관련업종 등)이 2001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현재 단지 내 업종의 3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주도 아파트형공장 건설 촉진과 함께 관련 업체가 대거 입주하고, 기존에 있던 업체들 중에서도 첨단업종으로 업종을 전환³⁾하거나 기존 업체에 연구 기능이 보강되어 대체입주⁴⁾하는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3) 업종전환 : 전자업종에서 첨단업종으로 업종을 전환(15개사)

4) 대체입주 : 반도체, 통신 업체 중 기존의 단순납품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R&D기능을 추가한 업체를 일컬음(9개)



〈그림 6〉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업종별 사업체수 비율

주 : 비제조업은 대기업의 연구 개발(R&D) 및 시제품 생산시설, 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시설, 첨단기술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패션디자인업의 지식산업 관련업종 등을 말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 (2004.12 작성), 가공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인프라구축과 행정지원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과 임대료 수준

○ 공장등록 현황 및 입주업체수

- 2004년 12월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공장등록을 마친 아파트형공장은 68개, 총 3,755개의 업체가 입주되어 있음
- 준공을 마친 아파트형공장은 29개, 진행 및 계획 중인 아파트형공장 (코오롱사이언스벨리, 리더스타워, 월드메르디앙 2차, 우림 라이온스벨리1차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68개에 이릅니다

<표 4>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단지별 개요

구 분	계	1단지	2단지	3단지
아파트형 공장	68	2	13	15
준공	29	18	4	7
건설중	21	9	4	8
미착공	18	3	5	10
입주 업체수	3,755개	1,663개	523개	1,569개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현재와 미래」, 2005.2

○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 수준

-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서 토지공급 가격이 서울의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으므로 완공 아파트형 공장⁵⁾에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업체는 보증금 35만원에 월세 평당 3만5천원 수준인데, 평당 임대료를 2003년 3/4분기 서울시 오피스시장의 월세와 비교해 보면, 도심지역은 평당 6만2천원, 강남지역은 평당 5만1천원, 마포/여의도지역이 평당 4만2천원 수준으로, 도심과는 2만7천원, 강남과는 1만6천원, 마포/여의도 지역보다 7천원 정도 저렴함

세제혜택 및 기타 지원내용

○ 세제지원

-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 면제되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됨

5)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층고가 20층 정도이고 정보통신망이 깔린 고급 오피스빌딩임. 참고로 디지털단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많은 사업체는 강남 등 타 지역에서 저렴한 오피스구입 비용 때문에 이주하였음.

〈표 5〉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혜택

구 분	감면업종	세부내용
대 상	제조업	-
	벤처기업	-
	지식산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 등
	정보통신산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 처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
	기타	특정 산업의 집산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아파트형공장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기업
세제혜택	취득세, 등록세	100% 면제
	종합토지세, 재산세	50% 경감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자료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28조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9조 제2항, 구로구세 감면조례 제14조

○ 중소기업기금 지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제조업체(우선), 수출업체,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졸업기업, 유망중소기업, 산업단지입주업체 및 아파트형공장입주자 등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 및 아파트형공장 입주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1업체당 2억원 이내의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음
- 현재 구로구청(1단지), 금천구청(2,3단지)에서 지원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기금액은 총 78개 업체 85억원에 이릅니다

〈표 6〉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기금 지원액

구 분	년도	업체수	지원금액
구로구	1995~2005	23개 업체	24억 8천 7백만원
금천구	1997~2005	55개 업체	60억 1천 3백만원

자료 : 구로구청 산업경제과, 금천구청 산업환경과 내부자료 (2005. 5.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발전방안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협의와 지원이 필수적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중앙정부관리 공단지기는 하지만 서울시에 위치한다는 이유 때문에 산업자원부 및 중앙부처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제약점을 가짐
- 예를 들면 디지털산업단지는 전국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테크노파크를 설치하기 위한 適地이나 서울시에는 이의 설치가 불허되어 단지개발을 위한 산업자원부 예산지원 및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입주가 이루어질 수가 없음
- 마찬가지로 서울시 역시 중앙정부관리 공단지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이나 예산지원을 하기가 어려움. 이점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선례가 되는 가와가와 사이언스파크가 중앙정부 지원없이 가나가와현과 가와사키시의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도심재생의 세계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것과 대조됨
- 그러므로 서울시와 산업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 및 도심공업지역의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장기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현행 수도권억제정책, 정부지원의 차별과 같은 비효율적인 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 특히 서울시가 장기발전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및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함
- 최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변신은 중앙부처 및 서울시의 정책개입 없이 중소기업형 연구개발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한 독특한 사례임. 그러나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 혹은 테크노파크와 다른 차별적인 성장모델을 모색하여야 함
- 1989년에 설치된 가와가와 사이언스파크의 사례는 2004년부터 일본 내 연구개발기업의 집적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 이제는 아시아지역의 우수 벤처기업 및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하여 아시아의 벤처 비즈니스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서울 역시 세계의 테스트시장으로 불리울 정도로 발전한 IT 소프트웨어기술을 특화하여 이 분야의 러시아, 중국, 인도, 대만 등 인접국가의 우수인력이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국제적인 기술교류의 장, 혹은 아시아 IT 소프트웨어타운으로 발전시키는 등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http://www.kicox.or.kr>

<http://www.e-cluster.net>

<http://seoul.e-cluster.net>

<http://www.city.kawasaki.jp>

<http://www.pref.kanagawa.jp>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현재와 미래」,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 2005.2